

국가 성인지예·결산서 분석·평가와 정책과제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Ⅰ): 국가 성인지예·결산서 분석·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방안

과제책임자 ... 조 선 주 선임연구위원

☎ Tel: 02-3156-7109, ✉ e-mail: sjcho@kwidimail.re.kr

요 약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성인지예산의 개념 정립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여 옴. 성인지예·결산서가 완성된 2011년부터는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편성 주기에 따른 정례적 연구, 성인지예·결산서 분석방법 및 시행수단 개발 연구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함

1. 배경 및 문제점

2006년 국가재정법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이래 올해 세 번째로 『2012년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었고, 최초의 성인지결산서인 『2010년 성인지결산서』가 작성되었음. 재정제도는 재정(예산)을 담은 기본 틀로서

재정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재정운용의 성패가 좌우됨. 이러한 재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성인지예산제도임

성인지예산제도는 한 차례의 재정운용 방향 제시로 끝나는 단기성 프로젝트가 아님. 장기에 걸친 지속적 시행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만큼 성인지예산제도의 성숙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되며 발전방안이 연구되어야 함. 이처럼 최근에 시행된 성인지예산제도를 평가하고 그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님. 아울러 체계적인 준비 및 지원·연구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미흡 등 실제 제도의 도입·적용에 따른 보완사항이 발견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의 현실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의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 당해연도 성인지예·결산서인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 및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과정과 이를 통한 재정운용의 성별효과를 분석·평가하였음. 또한 해당 공무원들의 의견 조사·분석을 통하여 성인지예산제도가 우리 재정현실에 맞도록 발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하였음

먼저¹⁾ 국내외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의 이론적 논의와 주요 선행연구 분석함. 또한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 및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과정과 작성내용을 분석·평가하고, 해당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재정운용의 성별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아울러 당해연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예·결산제도가 안착되고 발전할 수 있는 의견을 조사·분석하였음.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성인지예산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다각도에서 모색하였음.

1)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의 본 보고서와 본 보고서의 내용에서 다루지 않은 단위 연구보고서로 구성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할 것.

2. 조사 및 분석결과

□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의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가. 이론적 배경 및 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는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방법에 대한 논의와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과정과 집행결과를 성인지적으로 평가하는 논의에서 출발함. 성인지예산 분석·평가는 국가 재정운용 전 과정에 걸친 성인지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별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배분구조와 재정 준칙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임

그 동안의 논의를 두 축으로 정리하면 하나는 극단적으로 성인지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창출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재원이 투입되었으므로 성별수요에 따라 산출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산출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음. 그 논쟁의 배경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 국가재정법으로 근거를 가지며, 동시에 정부사업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대상사업의 효과적 선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임. 하지만 성인지예산제도 즉,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은 여성을 위한 예산을 양적으로 확장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으로 양자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실제 국가재정법 상의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원칙이나 이후 개발, 운영되는 성인지예산서의 체계와 양식 등을 살펴보면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김규옥, 2011). 먼저, 성인지예산제도는 양성평등적인 재정운용이라는 목표를 예산의 원칙으로 명백히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별수혜분석 결과를 성과 또는 평가정보로

서 활용하고 있음. 각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명시된 성과들을 「성인지예산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2011년 예산부터는 구체적인 여성 수혜비율 등 성과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성인지예산서」는 현행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의 ‘분야’·‘부문’ 및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예산과목 체계에서 세부사업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고 있음

한편 「성인지결산서」에는 일반적인 결산서에는 없는 사업별 성과실적과 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일반적인 결산서에는 사업별 예산액 및 이월·이전용 금액을 포함하는 예산현액, 결산액이 제시되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서」에는 이에 더하여 성별 사업대상자 수, 여성·남성 수혜자 수 및 수혜비율에 대한 3년간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이와 함께 사업별 평가 및 개선방안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통계적, 정량자료 이외에 정성적 판단 및 정책의지가 반영되어 있음. 이러한 요소는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사업성과 보고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음. 즉, 정부재정지출을 「성인지예산서」라는 산출물을 통해서 분석하며, 이 사업의 집행과정이나 결과를 「성인지결산서」를 통해 평가함

이처럼 성인지예산제도는 양성평등적인 재정운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그 이유는 양성평등사회가 효율적이며, 양성평등지수와 경제성장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 평등한 예산 편성이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임(김영옥 외, 2010a). 또한 사회구성원이 불평등 자체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즉, 양성간의 불평등이 존재할 때 사회구성원은 효용이 감소되므로 정부가 예산을 통해 양성 간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회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임

그렇다면 성인지예산의 도입취지에 근거하여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박노옥 외(2008)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출 사업이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임. 첫째는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직접적인 경로이고, 둘째는 정부의 예산지출이 의도하지 않게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임. 전자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인데, 기존의 성인지예산 연구자들은 외부성을 정부개입의 주요 근거로 지적하고 있음. 양성평등이 주는 혜택은 사회 구성원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며, 개인이 그 혜택을 배타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적정 수준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후자는 일반예산사업이 의도하지 않게 양성평등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다만 일반예산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리하는 행정비용이 편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인식되어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논의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 분석·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표 1〉 성인지예산 분석 및 평가

성인지예산 분석 및 평가	
정책수요 분석	집행과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에 따라 내외적인 상황변동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의에 대한 검토 - 영향, 방향, 강도, 변동전망 등 분석 - 추구하는 목표(성평등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편성된 사업이 원의도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를 검토
최적화 분석	사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으로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개발, 자료수집 등을 분석함으로써 최적대안을 식별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성별통계 등)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원래 제기되었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며 설정된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자료: 차의환(1999)을 바탕으로 필자가 성별에 미치는 영향(관점)을 반영하여 재구성함

나. 방법론

성인지예산제도, 성별영향평가제도 등을 비롯하여 정부는 다양한 양성평등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성평등지수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양성평등의 문제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 환경변화, 거시경제적 요인 등 많은 외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책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정과정 없이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이기도 함. 정부 예산사업에 대해 성인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주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해당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분석·평가하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이러한 요인 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엄밀한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이해임. 정부의 재정지출사업, 즉,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는 예산이 집행되어 사업이 종료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그리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등의 다양한 시점에서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함.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집단과 수혜대상이 되지 않는 집단에 대한 기초자료가 향후 정책 평가에서 중요한 경우가 있음

실제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애로가 되는 수혜대상의 선정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의 편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정책시행 이전 서베이와 정책시행 이후 서베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 단계에서 이미 서베이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 따라서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향후 평가를 염두 해 두고 정책을 설계하지 않으면 평가는 힘들어지게 됨. 그러므로 엄밀하고 정확한 성인지적 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평가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²⁾

2) 일반적으로 정부의 예산사업을 분석·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다. 먼저 사업모니터링(program monitoring)인데,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한다. 이는 사업 집행을 모니터링과 사업성과의 모니터링으로 구분한다. 사업성과의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투입 활동 및 산출물들을 측정하고, 사업의 성과들을 사전에 설정되었거나 또는 기대되었던 성과와 비교하는데 평가의 중점이 주어진다. 다음은 사업영향평가이다. 이는 정책평가 또는 프로그램평가라고도 하는데

특히 정부의 예산사업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한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그리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등의 다양한 시점에서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정부지출, 사업의 산출물, 또는 사업 결과의 분포가 양성 간에 평등한지를 평가하는 것(박노옥 외, 2008)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음. 여기서 무엇이 양성평등이냐에 대해서는 사회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른 관념을 가질 수 있는데, 정부 지출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지출의 귀착이 양성 간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만약 산출의 평등이 중요하다면 예산사업을 통한 산출물이 양성 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의미함. 만약 결과의 평등이 중요하다면 예산사업을 통해 달성되는 결과가 양성 간에 동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박노옥 외, 2008)

또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은 사업 수혜자의 수요나 여건에 대한 고려임. 즉, 양성 간의 수요 차이를 고려한 지출, 산출, 결과의 평등성이 논의되어야 함. 그러나 양성 간의 수요 차이 이외에 개인의 선천적 능력, 가구의 소득수준, 성장환경, 거주지역 등에 따라 지출, 산출, 결과의 평등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도 고려하여야 함. 아울러 양성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함. 이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예산사업의 지출, 산출, 결과 중 어느 측면에서 양성평등성을 논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와 합의가 필요함. 아울러 어떤 측면의 양성평등성을 논하더라도 지출, 산출, 결과의 평등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 다른 변수를 통제하여야 비교적 순수하게 양성 평등성 측면을 추출해 낼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양성간의 차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통제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분

정책 또는 사업영향평가를 지칭할 정도로 가장 널리 알려진 평가이다. 이 평가는 사업이 대상이 되는 모집단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를 식별해 내고, 또한 이러한 변화가 바로 집행된 사업에 의하여 오게 된 것이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영향평가는 그 접근방법에 따라 ① 진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영향평가(의학, 약학에 많이 쓰임), ② 준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영향평가(여건이 비슷한 것끼리 짝이 지어하는 것 : 시계열분석 등), ③ 비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영향평가(통계적 방법에 의하는 것 : 질문)등으로 구분된다.

석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정부 재정지출사업, 예산사업을 분석·평가하는 방법론의 동향을 조망하면서 이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최근의 시도와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하였음. 이는 크게 성인지적 예산분석과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성인지적 예산분석

- 예산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지적 예산분석」과 「성별영향평가」가 별개의 제도로 운용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예산 요구 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스웨덴에서는 「예산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성인지적 예산분석」으로 정의하고 있음. 정책에 대해 정책수요자 및 수혜자에 대한 성평등 분석 뿐만 아니라, 조직, 인력 등 인프라와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는 것도 「성인지적 예산분석」에 포함됨
- 거시 재정정책의 성별영향평가 : 거시 재정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연구되어 왔음. 하나는 경제활동과 성 평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로 성차별의 감소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다른 하나는 재정정책에서 성 평등 이슈를 찾아내고 예산현황을 기술·분석하는 연구들로 분야별로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성 평등 이슈를 비롯한 새로운 아젠다를 제기하는 연구들이 있음

○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 분석

다음은 정부가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가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국가 성인지결산서 및 국가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

으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들과 해당 효과 분석·평가에 활용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였음

그 동안 「성인지예산서」를 전반적으로 평가한 연구 및 관련 내용들에 따르면, 실증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작성과정이나 제도전반에 대한 분석·평가 연구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10a·2011; 김영옥 외, 2010a; 조선주 외 2011a). 예를 들어 세부사업 단위별로 사업설명자료 취합의 형태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어 단편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담아내야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분석·평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바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예·결산서를 통해 무엇을 분석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분석에 활용 가능한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계량경제학적인 방법들(이중차감법, 성향점수를 활용한 매칭방법, BIA분석, CVM 등)이 있을 수 있음

□ 국가 성인지예·결산서의 분석 및 평가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서는 즉, 성인지예산 편성은 단년도 일반예산 편성 주기와 동일함. 먼저 4월에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³⁾에 따라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 및 대상사업(안)을 각 부처에 제안함. 5월~6월에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⁴⁾을 실시함. 아울러 각 부처는 6월 30일까지 부처의 취합한 「성인지예산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각 부처의 취합된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검토 절차를 거친 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하게 됨

3)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기준(「성인지예산서」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4) 2011년 현재 컨설팅에 대한 관련 법 및 근거 규정은 없으며, 여성가족부가 연구용역 과제의 형태로 관련 연구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한편, 「성인지결산서」는 당해연도 11월에 성인지결산서 작성 양식 및 지침이 각 부처에 배포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1월1일 ~ 12월31일)마다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확정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함. 「성인지결산서」역시 이와 같은 결산의 절차를 따라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였음

성인지예·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외국의 성인지예산서는 성 평등에 관한 특정한 사업이나 분야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서술하는 형태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음. 반면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서는 프로그램예산체계를 바탕으로 세부사업단위의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업의 세부사업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주요 작성내용에는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법정서류인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의 작성과정을 분석·평가하고, 상기자료를 데이터 구조화하여 앞서 논의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음

둘째, 법정서류인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작성과정을 분석·평가하고 상기자료를 데이터 구조화하여 앞장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음

셋째,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 앞장에서 제시한 PVM 방법을 사용하여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제도의 개선과 발전방안을 도출하였음

가.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 분석 및 평가

1) 분석 자료 및 방법

본 절에서는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를 바탕으로 앞서 제시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따른 성평등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였음



[그림 1] 성평등 효과와 요인분석

이를 위해 정부가 5월 말 국회에 통합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를 취합한 문서화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이 가능한 레이아웃(layout)을 만들었음. 이에 근거하여 문서화된 결산서 내용을 DB화 하였음. DB는 성인지결산서 각 항목, 즉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담당부처, 회계명, 예산현액, 집행액, 성별집행액,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변수로 하는 모든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입력 완료된 모든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를 실시하였음. 이와 같은 DB 구축 및 검토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 주요 변수별 분석을 수행하였음

이 때 성평등 효과를 대체하는 변수로서 여성수혜자의 변화분(2010년 여성수혜자 수 - 2009년 여성수혜자 수)을 사용하였음. 그 이유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2010년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이후와 이전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임

이 때 「성인지결산서」 작성사업 중 성별분리자료가 사용가능한 사업만이 분석대상이 되므로,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중 양성평등정책사업을 제외한 일반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아울러 성별분리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하였음

5) 성인지결산서에는 여러 가지 변수(지표)들이 있다. 이 중 성평등 효과를 대체하는 변수로서 여성수혜자의 변화(2010년 여성수혜자 수 - 2009년 여성수혜자 수)를 사용하였다. 여성수혜자수의 변화가 +이거나 0이면 1, -이면 0을 사용하였다.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2010년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이후와 이전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2) 분석결과

모형1은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성평등 목표만을 통제한 결과임. 먼저 양성평등정책사업은 성별영향분석사업과 비교할 때 전년도 대비 여성수혜자가 동일 수준 혹은 증가의 오즈비(odds ratio)가 31.91로 나타났음. 즉, 양성평등정책사업이 성별영향분석사업보다 전년도 대비 여성수혜자가 동일 수준이거나 약 32배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 상의 양성평등사업은 여성사업이거나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었기 때문임. 한편, 여성권익보호 사업은 여성인력활용을 성평등 목표로 하는 사업과 비교 할 때, 전년도 대비 여성수혜자가 동일 수준 혹은 증가의 오즈비가 0.69로 나타났으며, 성평등추진기반구축을 성평등 목표로 하는 사업은 1.97로 나타났음. 그러나 성평등 목표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모형2는 모형1에 여성 세출예산현액 증감과 집행률 증감을 통제한 결과임. 먼저 양성평등정책사업은 성별영향분석사업과 비교할 때 전년도 대비 여성 수혜자가 동일 수준 혹은 증가의 오즈비(odds ratio)가 26.79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p < 0.01$). 모형2에 고려된 추가 변수 중 여성 집행률의 변화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Adjusted X^2 와 -2Log Likelihood을 살펴볼 때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모형1보다는 모형2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대상사업이 양성평등정책사업이면서, 동일기간 여성 집행률이 증가한 사업이 여성수혜자 수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음

〈표 2〉 여성수혜자 수 변화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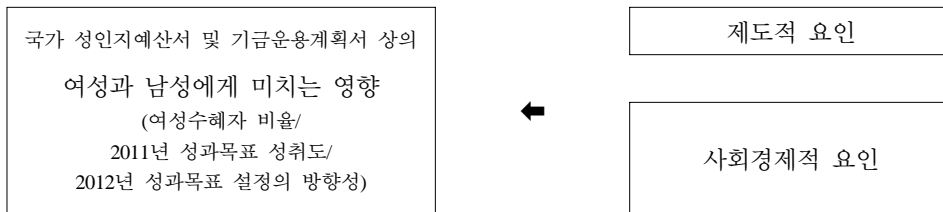
변 수		모형 1		모형 2	
		오즈비 (OR)	95% 신뢰구간 (CI)	오즈비 (OR)	95% 신뢰구간 (CI)
대상사업 선정 기준	성별영향분석사업 양성평등정책사업	1.00 31.91**	10,20-99.78	1.00 26.79**	8.15-88.01
성평등 목표	여성인력 활용	1.00		1.00	
	여성의 권익보호	0.69	0.20-2.41	0.88	0.23-3.30
	성평등추진기반구축	1.97	0.27-14.70	1.30	0.15-11.06
(2010년여성세출 예산현액 - 2009년여성세출 예산현액)	감소 유지/증가			1.00 2.31	0.68-7.84
(2010년 여성집행률 - 2009년 여성집행률)	감소 유지/증가			1.00 9.70*	1.12-83.70
Adjusted X ²		0.47		0.54	
-2log likelihood(-2LL)		95.07		85.74	

*p<0.05, **p<0.01

나.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분석 및 평가

1) 분석 자료 및 방법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따른 국가재정 운용의 성별 배분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즉,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임



[그림 2]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정부가 9월 말 국회에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취합한 문서화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이 가능한 레이아웃(layout)을 만들었음. 이에 근거하여 문서화된 예산서 내용을 DB화 하였음. DB는 「성인지예산서」 각 항목, 즉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담당부처, 회계명, 성평등 목표, 사업대상자(전체/여성), 사업수혜자(전체/여성), 예산(전체/여성), 성과목표를 변수로 하는 모든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입력 완료된 모든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를 실시하였음. 이와 같은 DB 구축 및 검토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 주요변수별 분석을 수행하였음.

성인지예산서 자료분석을 통해 성별 자원배분 추이를 살펴보므로, 분석의 주요변수는 여성수혜자 비율이 됨. 여성수혜자 비율은 여성수혜자 수를 전체수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됨. 따라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중 성별분리자료가 사용가능한 사업만이 분석대상이 되므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작성사업 중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을 제외한 일반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그러나 성별분리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별분리자료가 모두 제출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254개 세부사업 중 성별영향분석사업은 57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197개 사업임. 이 중 성별분리 통계가 작성된 최종 분석대상은 31개 기관 159개 사업임.⁶⁾

6)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는 총 34개 기관에서 제출하였다. 이 기관들 중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예산서는 모두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장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성별영향분석사업에 대한 예

이와 같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피설명변수					
2011년 여성수혜자 비율	(%)	45.97	26.69	2.71	100
2011년 성과목표 성취도		0.67	0.47	0	1
=1 if 2011년 여성수혜자 비율>=2011년 성과목표	(더미)				
2012년 성과목표 방향성		0.67	0.47	0	1
=1 if 2012 성과목표 > 2011년 여성수혜자 비율	(더미)				
설명변수					
2010년 여성수혜자 비율					
80% 이상	(더미)	0.13	0.33	0	1
60% 이상 80% 미만	(더미)	0.17	0.38	0	1
40% 이상 60% 미만	(더미)	0.26	0.44	0	1
20% 이상 40% 미만	(더미)	0.23	0.42	0	1
기금 여부	(더미)	0.14	0.35	0	1
일자리사업 여부	(더미)	0.47	0.50	0	1
성별영향평가 기평가사업 여부	(더미)	0.36	0.48	0	1
2010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여부	(더미)	0.56	0.50	0	1
2011년 여성대상자 비율	(%)	47.03	20.04	0	1
2011년 예산	(백만원)	43,348	230,679	4	2,825,258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 증감률	(%)	24.94	138.96	-93.48	1223.01

2) 분석 결과

2011년 여성수혜자 비율(T-test)결과 2011년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는 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성별분리 통계가 미기재 되어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업의 경우 여성수혜자 비율이 높았던 반면, 안전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여성수혜자 비율이 낮았음. 2011년 성과목표의 성취도(종속변수, 이항로짓 분석)분석결과 2010년 여성수혜자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사업이 아닐수록, 일자리사업이 아닐수록, 2010년 대상사업이 아닐수록 2011년 성과목표 성취도가 1일 확률이 높아졌음.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계산한 결과 일자리사업의 여성수혜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2010년 대상사업이었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여성수혜비율이 낮았던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기금사업은 불평등한 성별재원배분의 효과가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2012년 성과목표 설정의 방향성(종속변수, 이항로짓분석)결과 2010년 여성수혜자비율이 높을수록, 2010년 대상사업이 아닐수록 2012년 성과목표 방향성이 1일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T-test 결과

변수		여성수혜자 비율 평균	표본의 수	Pr(T > t)
회계	일반, 특별	46.0	137	0.98
	기금	45.8	22	
일자리사업 여부	일자리사업	51.3	74	0.02
	기타 사업	41.3	85	
안전사업 여부	안전사업	20.6	6	0.02
	기타 사업	47.0	153	
2012년 추가사업 여부	추가사업	40.4	15	0.40
	기타 사업	46.6	144	
2010년 대상사업 여부	대상사업	40.0	89	0.00
	비대상사업	54.0	70	
성별영향 기평가 여부	기평가사업	45.0	57	0.72
	미평가사업	46.5	102	
전체 평균		46.0	159	

〈표 5〉 2011년 성과목표 성취도 분석 결과

변수명	추정치	P> t	95% 신뢰구간	
피설명변수				
2011년 성과목표 성취도 =1 if 2011년 여성수혜자 비율>=2011년 성과목표				
설명변수				
2010년 여성수혜자 비율				
80% 이상	2.62	0.01	0.67	4.56
60% 이상 80% 미만	2.19	0.00	0.80	3.58
40% 이상 60% 미만	2.29	0.00	1.11	3.48
20% 이상 40% 미만	1.14	0.03	0.09	2.19
기금 여부	-1.20	0.06	-2.46	0.05
일자리사업 여부	-0.76	0.09	-1.65	0.12
성별영향평가 기평가사업 여부	0.45	0.32	-0.43	1.32
2010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여부	-0.95	0.07	-1.96	0.07
2011년 여성대상자 비율	-0.02	0.18	-0.04	0.01
2011년 예산	0.00	0.30	0.00	0.00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 증감률	0.00	0.56	0.00	0.00
상수	1.15	0.10	-0.22	2.51
LR χ^2 (P-value)	32.11(0.00)			
Pseudo R^2	0.16			

〈표 6〉 2012년 성과목표 방향성 분석 결과

변수명	추정치	P> t	95% 신뢰구간	
피설명변수				
2012년 성과목표 방향성 =1 if 2012년 성과목표 > 2011년 여성수혜자 비율				

변수명	추정치	P> t	95% 신뢰구간	
설명변수				
2010년 여성수혜자 비율				
80% 이상	-3.17	0.00	-5.04	-1.29
60% 이상 80% 미만	-2.55	0.00	-4.12	-0.98
40% 이상 60% 미만	-2.15	0.00	-3.56	-0.73
20% 이상 40% 미만	-1.57	0.03	-2.99	-0.16
기금 여부	-0.31	0.62	-1.57	0.94
일자리사업 여부	-0.19	0.66	-1.06	0.68
성별영향평가 기평가사업 여부	0.38	0.39	-0.48	1.24
2010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여부	-1.26	0.01	-2.25	-0.28
2011년 여성대상자 비율	0.00	0.88	-0.03	0.02
2011년 예산	0.00	0.76	0.00	0.00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 증감률	0.00	0.45	0.00	0.00
상수	3.38	0.00	1.58	5.18
LR χ^2 (P-value)		27.39(0.00)		
Pseudo R^2		0.14		

다.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조사 분석 및 평가

또한 성인지예·결산서작성 과정에 대해 PVM방법을 사용하여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한 공무원들(223명,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2011.8.2~9.2)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였음

먼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관련임. 성인지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이해가 부족하고,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중 「성별수혜분석」 항목과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중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항목 작성에 대한 가장 많은 어려움을 제기하였음

둘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침 및 매뉴얼 관련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침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음.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부처별 맞춤형 매뉴얼과 성인지결산서 작성을 위한 매뉴얼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세 번째는 의식의 변화 및 향후 과제임.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성평등 개선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공직사회 내 합의, 성별분리 통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3. 정책제언

□ 추진체계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원 및 분석 기관 지정 및 이에 맞는 위상 정립 필요

제도 전반 및 작성방법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가 다소 부족하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매뉴얼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성인지예·결산서의 작성을 지원하고 부처별 특성 및 관련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상설기관 및 이에 맞는 위상 정립이 필요함

-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심의위원회(가칭) 구성

각 부처에서 작성한 성인지예산서를 기획재정부 성인지예산팀에서 취합·보완하여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하지만, 대상사업 확정 및 소관 예산심의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 심의에 대한 이해가 제각각이라 사업담당자들의 혼선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각 부처에서 제출한 성인지예산서를 검토·심의하여 예산편성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인지예산서 심의기구의 설치 필요함

○ 국가 성인지예·결산서에 대한 전문가 분석의 법적근거 마련과 성인지 예산분석·평가 방법론의 매뉴얼화

성인지예산 분석·평가는 국가 재정운용 전 과정에 걸친 성인지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별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배분구조와 재정준칙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함. 다양한 분석·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제도시행 과정의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으로 인한 산출물까지 포함하여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효과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엄밀하고 정확한 성인지적 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인지예결산서에 대한 분석·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위한 분석평가 방법론을 매뉴얼화하는 것이 필요함

□ 작성기준, 방법, 양식 등

○ 성별 사업수혜자료 내실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으므로 성별 수혜, 성별 수혜 격차 원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러한 성별 수혜분석을 위해서는 예산, 지출액, 수혜자에 대한 성별 통계 및 집행 실적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3차 여성정책기본 계획사업의 재정비 및 해당사업의 시계열 관리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예산서 양식으로 성별 수혜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규모 등 변화의 추이를 기획재정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시계열적으로 관리하고 상기와 같이 공시하는 내용에 같이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목표 산출기준 구체화

성인지예산서 상의 사업별 성과목표(성평등지표) 산출근거 및 기준 구체화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함

□ 활용방안

○ 성인지예·결산서의 심층적 분석 및 이에 대한 공시

세부사업단위가 아닌 법정서류 전체를 통한 정부예산 지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제도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성인지결산서의 적극적인 활용

성인지결산서 상 성별격차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익년도 성인지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성인지결산서를 통해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의 일치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성평등 효과 및 평가를 바탕으로 차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성인지결산서 상의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에 역점

현재의 성인지결산서 작성체계 상 사업별 집행내역을 취합하는 것은 어

려움이 따름. 성인지결산의 주요내용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집행 상의 특징, 통합재정, 성과 등을 포함한 국가전반의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실제 우리나라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기 시작하여 법정서류로서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가 작성되기까지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념 및 정의는 각 시행주체 및 관련 당사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함. 그러나 국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 본격화되면서 재정지출에 있어 정부가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책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음.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의 결과로 2010년부터 세 번의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었으나,⁷⁾ 제도의 성격상 의미 있는 성과정보를 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성과를 가시화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음. 하지만 국가 성인지예산 제도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과정의 분석·평가와 성인지예·결산제도 및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함. 일부 연구들에서 산발적으로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평가가 있었지만 방법론 및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산발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음. 또한 연구자나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제기되는 내용이 상이하였음.⁸⁾

7) 현실의 어떠한 제도도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의 양성평등성을 높이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사용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이정선, 2011).

8) 국회예산정책처(2010, 2011)에 따르면 성인지예산과 사업별 설명자료의 취합형식이 국가 성 평등 목표와 이에 따른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의 현실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의 이론적 배경을 정립해보고자 하였음. 정부 재정지출사업, 예산사업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방법론의 동향을 조망하면서 우리 재정실정에 맞는 성인지예산 분석·평가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적용 가능한 최근의 시도와 방안들을 제시하였음

또한 상기의 일부 방법론을 사용하여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의 작성과정과 해당 법정서류를 분석·평가하였음. 또한 이를 작성한 국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평가하여 제도의 개선과 발전방안을 도출하였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국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정현실에 맞는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의 개념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개념 및 논의는 세부 주제별로 단편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논의와 성인지적 예산분석, 예산의 성별영향평가 등 혼재되어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였음. 성인지예산 분석·평가는 국가 재정운용 전 과정에 걸친 성인지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조선주 외, 2010)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별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배분구조와 재정준칙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제도 시행의 산출물로 작성된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그러므로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까지 법정서류라는 산출물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중

그러나 재정학의 학문적 성과가 진일보한 현 시점에서 성과를 측정하고 효과를 판정하는 작업은 지난한 작업이다. 따라서 정부 공무원이 작성하는 예산서를 고도의 학문적 지식이 필요한 내용으로 작성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이다. 대신 전문가 집단들에게 자료가 공개되고 공유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임주영 외, 2011).

합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장을 펼치게 되었음.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부의 재정사업이 명시적인 성별에 대한 차별이 없지만 실제 성인지 예산서 상에서는 경제 및 사회생활의 패턴과 밀접한 요소들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성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둘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통해 정부의 세부사업 단위의 성별 통계정보가 생산되고 누적되기 시작하였음. 또한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성별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재정사업에 있어 성별 수혜격차 및 예산을 측정할 수 있었음. 수혜격차 및 예산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것은 정보의 신뢰성이며, 이중 핵심은 성별수혜정보임. 실제로 남녀가 처한 사회적, 개인적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고 부정확함. 남녀의 실제 상황에 대해, 특히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점검하고, 양성 평등한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음. 그 동안의 정부사업에 대해 거시적인 성별통계는 작성되었지만 실제 세부사업 단위에서의 사업통계는 작성되지 않거나, 작성되더라도 시계열자료로 관리되지 않았음.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통해 관련 사업대상자의 성별 정보 및 사업수혜자의 성별 정보가 누적되기 시작하였으며, 법정서류로서의 지위를 더해 관련 통계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⁹⁾

셋째, 성과목표(지표)관리를 통해 성인지예산 편성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음. 이는 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상의 성과목표(지표)는 성 평등 목표(지표)임.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따르면,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상의 성과목표를 제시하되 없는 경우 성별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량화된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성별수혜정보는 한정된 예산을 부문간, 사업간 또는 성별로 배분하는데

9) 물론 III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 분리통계가 모두 제출된 사업은 197개 사업이었으나,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159개 사업이었다.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에는 해당 자료 등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입력되고 관리되므로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에는 지속사업의 경우 최소한 2010년, 2011년 통계는 스크리닝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있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임. 대상사업과 관련된 성 불평등 문제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한 자원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성별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 및 예산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므로 성과목표(지표)는 지표자체의 대표성, 포괄성, 결과지향성이 담보되어야 함. 아울러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가 타당하여야 함. 성과측정 산식 등은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그 의미를 갖기 때문임.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상에서는 성인지예산서 상의 성과목표(지표)의 적시성 뿐만 아니라 성과 지표에 대한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음¹⁰⁾. 그 예로 본문에서 2011년도 성과목표의 성취도를 피설명함수로 하여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미 여성 수혜자비율이 충분히 높은 사업인 경우 성과목표를 기준의 수혜율로 고정하거나 매우 작은 수혜율 상승만을 목표로 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기금 사업인 경우에는 불평등한 성별 자원배분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넷째, Cross-cut 방식에 따른 대상사업 (일부)선정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 방식 개선의 근간을 제공하였음. Cross-cut 방식에 따른 기대효과는 먼저 유사한 사업담당자들 간의 조정 및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사업담당자들이 공통의 목적에 동의하고 공통의 문제점에 대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모범적인 목표 및 사례, 공통의 성과지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사업간 조정 가능성 등을 확인 가능하며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정보 외에 유사사업간 비교분석을 통해 다양한 성과정보를 제공하여 예산 편성 및 사업방식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상에는 각 부처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한 사업들이 포함되었으며, 성별 수혜자 비율이 일자리사업의 유형별로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즉, 성인지예산서의 일부를 Cross-cut 방식에 따라 작성하고 분석함으로써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10) 이 부분은 성과가 될 수도 있지만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과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사업에 여성들이 집중해있는 반면, 역량강화를 통해 취업 또는 승진의 가능성을 높이는 교육·훈련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집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러한 정보와 분석은 일자리 예산편성 및 사업방식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하였다고 보여짐

마지막으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국가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요구사항을 도출 할 수 있었음. 부처별 맞춤형 매뉴얼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의 성평등 개선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대체적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음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이외 중앙행정기관